

“어떤 바구니를 채우실건가요”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 아래의 질문들은 각 구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넣고 빼가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 한가지씩을 우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한 주간동안 묵상한 큐티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좌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지난 주일영광예배때 나눈 말씀을 삶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왜 범사(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5.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95가지 논제를 써서 붙입니다. 루터의 대자보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할 목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시의 사제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에 ‘과연 무엇이 맞는지 성경을 보면서 토론해보자’는 정도의 의도였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학교를 벗어나 유럽 전체를 뒤덮게 되는 거대한 운동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날을 마치 생일처럼 여기며 기념하는데요. 이날은 무슨 날인가요. (힌트: 오늘 공과를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6. 세상 사람들은 10월 31일을 흔히 귀신이나 마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귀신 분장을 하는 풍습을 가진 할로윈 데이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날은 **종교개혁주일**이고, 교회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이날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이 주간에 ‘땡큐페스티벌’을 열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7.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될 때에 모형이었던 그런 것들은 폐기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겨 있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감사절을 특별하게 정해서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바쁘게 살기에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 단어로 사행시를 짓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 : _____

수 : _____

감 : _____

사 : _____

8.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다른 하나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입니다. 오늘 모인 구역의 식구들과도 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_____

②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_____

*** 합심기도 :**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2.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3.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01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목사)